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6) 성령

Our World Belongs to God



심재승 (돌트칼리지 교수)

칼빈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칼빈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하고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돌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교수로 재직중이며, 기독교 교육, 기독교대학 교수 훈련과 공공신학에 관련하여 일하고 있다

북미개혁신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교단에서 발행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를 연재합니다. 이 문헌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현재의 사고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하여 살 것인가를 다룬 문서로 한국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재합니다. 이 문헌의 소개는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한 돌트칼리지(Dordt College)의 심재승(신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문서의 한글 전문은 “<https://www.crcna.org/welcome/beliefs/contemporary-testimony/>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편집자).

본문 해설

본 문서,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삼위일체적인 구성으로 작성되었다. 본문은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구속사적인 역사인식으로 시작한다(단락 28).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이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구속인데, 약속으로부터 성취로 전개되는 구속사가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성격과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그 구속의 전개가 삼위일체적인 언어로 작성되었다. 본문은 창

조를 ‘태초에 성부, 말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단락 8)라는 표현으로 창조를 삼위일체적인 언어로 해설하고 있다. 요한복음 1:1-14과 골로새서 1:15-20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하셔서 사랑하시는 창조주 이심을 강조한다. 창조기사가 기록한 혼돈된 물 위에 역사하신 성령을 시편은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33:6)라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바람과 호흡

성령 (The Spirit)

28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그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남성이나 여성이나
 젊은이나 노인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29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과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순종의 삶이 새롭고 역동적이도록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놀람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어,
 예언함, 격려함, 병고침, 가르침, 봉사, 방언을 말함, 분별력과 같은 은사들로
 각 성도를 갖추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도록 하신다.

30

성령께서는 모든 언어, 종족과 나라들로부터 백성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신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별되고 파송된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대사로 죄를 용서함과 화목됨을 선포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어졌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앞서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세상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모든 언행에 있어서 가까이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과학과 예술의 세계로 미디어와 상가로
 삶의 모든 분야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용한다.



1. 사도행전 2:16-21에서 오순절 성령감림으로 약속이 성취됨과 꿈과 이상에 관하여 살펴 보라.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을 누가복음 3:16, 요한복음 1:32-34, 20:22, 사도행전 2:32-33에서 살펴 보라. 성령께서 성도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심에 대하여 사도행전 2:41-47을 살펴 보라. 요한복음 14:15-24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처를 삼으심을 살펴 보라.
2. 디도서 3:4-7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로마서 5:1-5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요한복음 16:13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로마서 8:26-27에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히브리서 2:18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로마서 8:1-11에서 우리의 순종함이 새롭고 역동적일도록 하심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3-8에서 성령의 은사를 살펴 보라.
3. 요한계시록 7:9-17에서 온 민족을 모으심을, 요한복음 20:21-22, 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 1:8에서 성령과 교회의 사명을, 고린도후서 5:18-21에서 파송된 대사로 서의 교회의 임무를, 요한복음 16:7-11에서 세상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빌립보서 1:27-2:15에서 성령 안에서 수행하는 교회의 사명의 폭에 대해서 살펴 보라.



으로 표현하고 있다(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람과 불로). 창조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성령은 구속에서 새 생명을 부여하신다. 이처럼 성경은 삼위가 함께 창조와 구속에 역사하시며 동시에 각자 독특한 역사를 이루심을 계시한다. 그래서 성부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으로(단락 12, 23),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성육신 되어 오신 메시야로(단락 23-27),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역사를 실행하시는 능력으로(단락 23, 28-30) 해설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삼위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사역들 사이의 일체성과 다름이라는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신학적인 정확성을 만족시킨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이해는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이 구속과 구속된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고 오순절 신학이 성령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폭넓고 풍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신학적인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삼위일체적인 성경 이해가 하나님의 구속과 구속된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훨씬 커다란 의미를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에서 보는 구속역사는 율법과 은혜 사이의 다름과 전자로부터 후자에 이르는 변화에 기초한 발전에 강조를 둔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세대주의 해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다름이 강조되면 되는 만큼 구약은 간과되고 신약만이 필요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삼위일체적으로 보는 성경 이해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약속으로부터 성취로, 구속의 양상을 제한적인 육체적인 언어로 인식함으로부터 영적이고 전인적인 거듭남으로, 또는 그림자로부터 본체로 이르는 하나의 구속계획으로 본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다름과 변화는 점진적 전개에 따라 발생하는 구속의 양상의 다름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2장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심,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말씀하심,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에 대하여 약속하심, 승천, 그리고 오순절 축일 기간에 바람과 불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오심, 그 후에 민족들 사이의 언어의 통일을 배경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진다. 이 모든 일들과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해석의 틀 안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성령강림과 그 후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모든 구속의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역사하시는 순간을 전환점으로 약속과 성취로 나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2:36).”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2:38).”

본문은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한다. 본문은 옛 언약을 폐하고 또는 그 대신에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가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 둘 다 성취되었다고 기술한다. 그것은 모세 이후 선지서까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의 기간을 옛 언약으로 보고, 포로기 이후 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신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 새 언약은 불충실한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을 배경으로 한

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 무효화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맺어주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새 언약은 다음과 같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mind)에 두며 그들의 마음 (heart)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예레미야 31:33-34).” 돌 판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적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두 언약은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시며 성부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히브리서 4:14-16). 성령강림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구속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여, 구약이 약속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 곧 ‘보혜사’의 오심을 말한다.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구약의 옛 언약 아래에 실행되었던 육체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영적인 중생과 일치심으로 발전하고, 예수의 구속을 믿는 모든 이들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방편이 주어졌다(로마서 2:25-29; 사도행전 2:21).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

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9:14-15)."

성령께서 개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들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설립되었다(단락 28). 그것이 새로운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이요, 또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새 언약이 성취된, 구약의 언어로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된 공동체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근본적인 성격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한복음 15:4)"에, 그리고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고린도전서 6:19)"이라는 말씀에 잘 드러난다. 거기서 이전에 율법이 요구하였던 육체적인 제한들이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함과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진다. 아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이 옛 언약 아래에서 가능했던가? 남성들과 여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성역에 자유로웠던가?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주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했던가?(사도행전 2:16-21).

단락 29는 개인과 공동체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해설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과 진리로 인도... 기도하도록...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순종의 삶이 새롭고 역동적 이도록 도우신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한다. 여기 마음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로마서 2:12)"에서처럼 생각하는 정신과 의지가 포함된 전 인간을 가리킨다. 그것을 '영혼의 변화'만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변화의 목표가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이 마음의 변화가 전인적인 변화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주어졌다. 본문은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놀랍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어... 각 성도를 갖추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도록 하신다'라고 기록한다(단락 29).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가르침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7절)."라고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피력한다. 여기 유익함이란 한 몸과 많은 지체라는 문맥을 고려할 때, 많은 영어 번역이 채택하는 '공동체의 유익'임을 알 수 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25절)."에서 은사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방언과 예언의 유익을 언급하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예언은 앞날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14:3; 19절 참조). 바울의 권면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인데 그 이유가 예언(가르침)의 목적이 교회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14:6). 이것은 매우 실질적인 유익이다. 한글로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수 있다. 여기서 그것은 교훈을 주고 가르치므로 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세운다는 의미이다. 은사의 이러한 활용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자연적인 은사인지 초자연적인 은사인지, 성경 시대에 제한되었는지 현재도 활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이며 상당 부분 현학적인 논의일 뿐이다.

본문은 병 고침과 방언을 말함과 같은 은사의 다양함에 열려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개인의 생각과 한 문화의 전통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은사의 목적이 개인적으로 순종의 삶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방편임을 명백히 함으로 소위 말하는 초자연적인 은사운동을 경계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삼위일체적인 성경 이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창조로부터 구속에 이르는 구속사가 구속과 구속된 삶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면, 구속사와 동떨어진 특별한 은사나 집회는 경계하여야 한다. 성령의 능력과 역동성은 은사 자체의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모습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이 새롭고 역동적인 것'에 의하여 드러난다. 은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교회의 사역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단락 30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성한다. (1) '성령께서... 백성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신다' (2) '성령에 의해서 성별되고 파송된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어졌다' (3)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신다' (4) '우리는 성령님

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모든 분야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용한다'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임이 강조되어 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이다. 오늘과 같이 혼란한 교회에 이러한 정의가 더욱 타당할지 모른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여야 한다. 우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민족으로부터 예수께 연합된, 예수를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둘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하여 성별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어졌다. 교회가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에 파송될 수 있다. 교회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잃는 순간, 또는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세상으로의 파송이란 의미 없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내어졌고 세상 안에 존재한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앞서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구원을 전파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능력이다. 오직 그의 능력을 힘입어 성도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용한다'. 앞의 둘째와 셋째가 선교사명이라면 네 번째 것은 구속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본 문서는 성경의 구속을 믿는 개인의 죄용서와 만물의 화목이라는 포괄적인 구속으로 이해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단락 22와 20). 그리고 개인의 죄용서가 만물의 화목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창조세계의 원래 운영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을 세상에 대사로 보내시어 자신의 구원과 다스림을 적용하게 하신다(고린도후서 5:17-21).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단락 30이 언급하는 ‘모든 언행에 있어서, 가까이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과학과 예술의 세계로, 미디어와 상가로, 삶의 모든 분야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용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이 가르치는 세상에 대사로 보내어진 개인 성도와 교회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해설이다.

본 문서는 끝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단락 41-54)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고려하여야 할 현대의 구체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